

# “공무원 업무 인수인계 근본적 개선 필요”

## 전주시 하반기 인사발령 종료

지난 10일 전주시청 하반기 인사가 이뤄졌다. 공무원 인수인계는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다. 업무를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민들은 늘 초보 공무원을 마주해야 한다. 시민들은 가장 짜증나는 것이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것과 전임자 핑계대는 것이라한다. 신규 공무원들이 5년 안에 그만두는 진짜 이유 중 하나가 악성 민원인에서부터 인수인계가 안 되는 공직사회의

나쁜 관행이 있다고 한다. 인수인계와 관련 박경귀 충남 아산 시장은 15일 “전 직원을 상대로 인수인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직내 인수인계 문화와 실태를 분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을 보완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강구하고 이렇게 해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될 경우, 해당업무로 인한 책임을 전임자에게 묻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인수인계문제는

법령을 뜯어 고칠 필요도 재정을 더 투입할 필요도 없다. 박경귀 시장같이 그저 오랫동안 잘못되어온 ‘악폐습’과 같은 이 발령과 인수인계 시스템을 약간의 강제성을 동원해 바로잡아 주기만 하면 된다. 이 부분 하나만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퇴직 러시를 꽤 많은 부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업무의 주요 사항 누락으로 시민들에게 혜택보다는 피해가 발생한다. 시장 군수 등은 공무원들이 업무 빠르게 파악해서 민원인들의 행정처리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편 10일 인사가 마무리된 전주시는 243명의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사이동 후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발령일 이후 상당 기간에 걸쳐서 전·후임자가 업무인수인계를 여유 있게 하는 편이다”며 “앞으로는 인수인계 기간 중 착안 사항 전달 및 분위기 조성 공지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 “인사이동 및 인수인계 이후 각종 설문조사 간담회 등 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삼천2동 착한가게 2곳 탄생

## 충만치킨·정식당 앤 우리들만의리그 현판식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 주민센터(동장 배경남)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승해)는 18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기부를 시작한 ‘충만치킨 삼천삼익점(대표 김공순)’과 ‘정식당 앤 우리들만의리그(대표 이정화)’를 방문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충만치킨 김공순 대표는 “착한가게의 뜻깊은 취지를 듣고 좋은 마음으로 동참하게 됐다”며, “작은 손길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내산 신선한 재료로 ‘집밥’ 뷔페를 운영하는 이정화 대표는 “나눔을 실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꾸준히 봉사하며 많은 사람

들과 더불어 사는 정식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천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승해 위원장은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선택 손길을 내밀어주시는 감사하다”며 “전해주시 후원금은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성공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나서

## 전주시, 총 3회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한 시민 워크숍 가져

전주시가 시내 중심도로인 기린대로에 버스중앙차로제를 도입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시는 지난 12일과 13일, 17일 총 3회에 걸쳐 기린대로를 도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정류장 등을 갖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바꾸기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의 홍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 워크숍을 개최했다.

수렴을 위한 조별 활동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한 BRT 이용 방법 홍보와 운수종사자 교육 △중앙버스정류장의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 △자전거나 PM(개인형이동장치)과 환승을 위한 공간 마련 △무단횡단 방지 및 불법주정차 대책 마련 △BRT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지난 12일과 13일, 17일 총 3회에 걸쳐 기린대로를 도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정류장 등을 갖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바꾸기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의 홍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BRT 도입의 필요성과 BRT 설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기수별로 약 40명씩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도로위의 정의로운을 주제로 한 강연 △백미역 전주시 버스정류장과의 ‘전주시 대중교통 비전 및 계획’에 대한 설명 △기린대로 BRT실시계획안에 대한 용역사의 설명 △분별 의견

이에 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기린대로변 상가연합회와 택시조합 등 BRT 사업의 이해관계자를 찾아가 홍보 및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안에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대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안)에 대해 최근 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에서 개최된 교통안전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설계 경제성 검토(VE, Value Engineering) 발주와 도시순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도내 처음 도입되는 간선급행버스체

계의 성공적인 추진에는 시민들의 이해도 향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공사 중 및 도입 초반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사업이지만 전주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민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교육 실시

최근 전국적으로 청년 등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전주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전주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전주시청 강당에서 부동산 전문가 이진아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명)를 초청해 전주시민 대상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전세 앱 활용 방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등 부동산계약 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그동안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주거복지 정책홍보와 주택 임대차 무료 법률상담 등을 운영해왔다.

이번 교육은 전주시민들이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전세 사기 유형 및 사례 △계약 시 유의 사항 △안심

정용욱 전주시 건축과장은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예방과 그 대처법을 소개하기 위해 교육을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이 참석해 전세사기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 생활법률지원단장 위촉

전주시의회는 18일 남관우 의장이 전북지방법무사회로부터 시민의 원활한 생활법을 상담을 위한 전주시생활법률지원단장에 위촉됐다고 밝혔다. 생활법률지원단장이 된 남 의장은 전주지역 35개 동에 배정된 법무사를 통해 일반 시민이 생활법을 상담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전북지방법무사회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업

무협약을 체결하고 35개 동에 120여 명의 ‘우리동네 법무사’를 배정, 시민의 생활법에 필요한 법률 상담 등을 하고 있다. 남 의장은 “법을 전문가가 동별로 배정돼 시민의 생활법을 접근성 향상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시의회도 원활한 생활법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전북지방법무사회로부터 시민의 원활한 생활법을 상담을 위한 전주시생활법률지원단장에 위촉됐다.

# 전주시설공단, 빙상경기장서 여름방학 특강반 운영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해 ‘여름방학 특강반’을 운영한다. 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전주 빙상경기장에서 스피드 스케이팅과 피겨 스케이팅 특강반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종목당 하루 3개씩 총 6개 강습반이 운영되며, 각 반의 정원은 8명이고 강습은 평일 주 5회씩 총 10회 진행된다. 강습 신청은 이달 28일까지 빙상경기장을 방문하거나 전화(063-239-2578)로 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총 48명을 모집하고 강습료는 12만 원, 이용료는 별도다.



전주 빙상경기장에서 스케이팅 강습을 받는 수강생들

구대식 이사장은 “방학 기간 학생들이 스케이팅을 즐기며 심신도 단련할 수 있도록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학생들은 물론 이용객 모두 시원한 아이스링크에서 무더위를 잊고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 관풍각

#### 내아